교불련 차기회장 선출 놓고 내홍 심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차기 회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등기이사들은 "불법 사이버총회"를 주장하고 현 회장과 차기 회장을 제명시켰으며,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김성규 회장 측은 "적법 절차를 거친 총회"임을 강조하며 불교미래포럼 등 예정된 일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용표, 연기영, 최용춘, 이용철 법인 등기이사들은 회장(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등기 이사인 김한란 성신여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히며, "현 회장인 김성규 영남대 명예교수와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송일호 동국대 교수를 회원에서 제명했다"고 1월 16일 공시했다.

등기이사들은 "공고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코로나 사태의 악화와 총회 준비의 미흡 등을 지적하며 김성규 회장 집행부에 총회 연기를 권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이버총회를 강행했다"면서 "이후 김성규 회장 집행부는 총회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4시 경 '비대면 Zoom으로 한다'는 변경사항을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했다. 이런 이유로 입후보자가 총회 참석을 권유한 특정 대학(동국대) 교수, 연구원 등이 100여 명이 참석해 송일호 회원이 65표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참석자 중 40여 명이 비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기이사들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김성규 회장에게 법정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부득이 법인 징계위원회를 4차례 소집해 '회원 제명'의 중징계를 하게 됐다"고 저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등기 이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상화 추진 연대회의(이하 정상화 연대회의)'도 구성됐다. 정상화 연대회의에는 교불련 소속 원로·중진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김한란(성신여대 명예교수, 교불련 회장직무대행), 송재운(동국대 명예교수), 이준(건국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위원으로는 곽만연(동아대 명예교수), 우희종(서울대 교수), 홍승기(동국대 명예교수, 前 BBS불교방송사장) 등 17명이, 집행위원으로는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 연기영(동국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 최용춘(상지영서대 명예교수, 교불련 前 회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 참여 서명자는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不法적 회장 선출, 무효"
등기이사 중심으로 반발
정상화연대회의 출범하고
정관 개정…2월 중 총회

정상화 연대회의는 1월 20일 서울 전법회관 4층 교불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수불자회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상화 연대회의는 성명서에서 "사태의 발단은 법인 정관 등 기본적 규범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무를 집행한 김성규 前 회장에게 있다"면서 "김성규 측은 학회지 등재를 위해 설립한 '연합학회'의 2013년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 정관'을 내세워 단체를 운영하고 이사회·총회를 소집해 본회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연대회의는 김성규·송일호 측에 사이버 불법총회를 개최해 저지른 행위를 무효화하고 사퇴·참회할 것을 촉구했으며, 등기이사회에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회원명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정관·제규정을 정비해 2월 중 총회를 열어 새 임원들을 선출할 것을 주문했다.

등기이사회와 정상화 연대회의의 주장에 김성규 회장 측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뤄진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비대면 회의를 위해서는 회원 자신의 전화번호와 직함을 명시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비회원 참여는 현재 선출된 신임 회장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주장"이라고 항변하며 "등기이사들이 신원불상·불법투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전원 확인했고 적절한 시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연임 제의가 있을 때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교불련 회원의 70~80% 가량이 퇴직 교수다. 교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직 교수가 활동해야 한다. 때마침 현직 교수가 교불련 회장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2년 간의 회계를 정리하고 있다"며 "회계 정리와는 별도로 재정도 교불련에서 선출한 감사가 감사를 시행했다. 총회 때 재무이사가 재무 내용을 발표했고,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공증을 위해 재무 내용을 공인회계사에 공증을 받아 차기 회장과 인수위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이사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 없는 사적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관에 따라 교불련의 법인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은 48명의 이사 뿐"이라며 "등기이사는 총회의 인준도 받지 않고 편의상 등록한 서류상 이사이며, 그들이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해 의결을 하거나 회원을 징계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등기이사 모임은 5인이 모여 만든 사적 모임이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적법 절차로 선거 진행
등기이사 사적모임 불과"
김성규회장측 즉각 반발
미래 포럼 등 강행 예정

현재 김성규 회장 측은 1월 2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7차 불교미래포럼을 진행했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현 집행부 공식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월 말경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송일호 교수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교불련의 내홍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 "부처님 가피 덕에 재임"

1월 19일 총무원장 스님 예방

대한체육회장 재임에 성공한 이기흥 전 중앙신도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 가피 덕으로 생각한다"며 남다른 감사를 전했다.〈사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당선 소감과 함께, 前 중앙신도회장으로서 불교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원행 스님은 "대한체육회장에 재차 당선된 것은 불교계의 큰 경사"라며 "그 원력으로 우리나라 체육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큰일 하셨다"고 덕담을 전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서 스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며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마음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송지희 기자

10교구 은해사 주지후보에 덕관 스님

1월 15일 교구 산중총회서
성담 스님과 4표차로 당선



은해사 주지후보 덕관 스님(사진 오른쪽).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차기 주지후보에 덕관 스님이 선출됐다.

은해사는 1월 15일 경내 육화원에서 차기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어 덕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산중총회는 전체 선거인단 119명 중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덕관 스님은 55표를 확보해, 51표를 받은 성담 스님을 제치고 주지후보로 결정됐다. 무효표 1표. 덕관 스님은 당선증을 수여받고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는 가운데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덕관 스님은 금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청하 스님을 계사로 1992년 사미계, 199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재무국장과 감사국장 등을 지냈으며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강화 보문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불굴사 주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4기 사회노동위 출범…위원장 지몽 스님

원행 스님, 승가·재가 27명 위촉
혜도·여등 스님 등 신규위원 5명

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인 이들과 함께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새 위원들을 선임하고 4기 위원회로 출범했다. 4기 사회노동위원장은 부위원장 지몽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4기 사회노동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임위원장 지몽 스님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4기 사회노동위원회는 승가위원 21명과 재가위원 6명,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당연직 위원이며, 혜도 스님(실상사)과 여등 스님(불영사),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최종진(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소성욱(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씨 등 5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제4기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3기 사회노동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지몽 스님이 선임됐다.

원행 스님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사회가 복잡다난해 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종단 대내외적으로 많은 역할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화합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어둡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보듬어 안는 것은 종교가 해야할 책무"라며 "종단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를 전했다.

신임위원장 지몽 스님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차별과 혐오와 부당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신 분, 장애를 가진 분,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분,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사각지대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참혹하다"며 "사회노동위원회는 그 분들에게 가장 낮은 오체투지의 자세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기도와 108배, 오체투지로써 고통을 함께하고 위로하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황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

청와대, 20일 부처 인사 단행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0일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 의원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시절 비서로 일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양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 국제선센터 10주년 법회에 참석하는 등 불교계와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